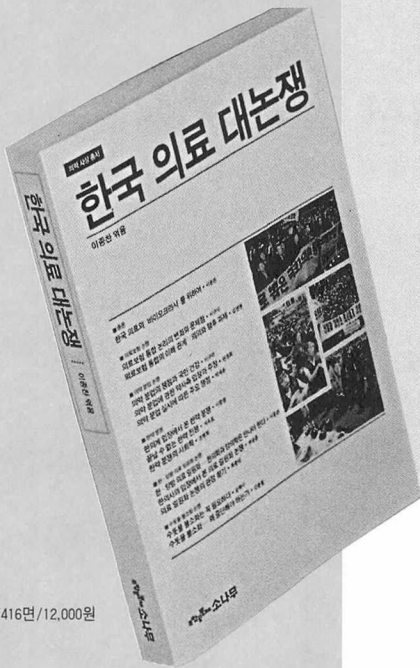


# 논쟁으로 읽는 한국 보건의료사

《한국 의료 대논쟁》

황상익 | 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보건의료업계의 분쟁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쟁을 읽는 법과 푸는 법을 제시한 책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건의료업계가 겪은 중요한 분쟁과 논쟁을 정리한 이 책은, 대체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공정하게 실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찬 엮음  
소나무/A5신/416면/12,000원

어떤 이는 우리나라 의료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현대의학이 궁극적인 한계에 봉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도 한다. 약사와 한의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의사들도 시위를 하고 엄밀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파업까지 하는 시대가 됐다고 혀를 차는 사람까지 있다.

과연 우리나라 의료와 현대의학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국 의료 대논쟁》(이종찬 엮음, 소나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독법'과 '해법'을 담은 책이다.

### 다섯분야로 나눠 살펴본 의료논쟁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중요한 분쟁과 논쟁을 '의료보험 논쟁' '의약분업 논쟁' '한약 분쟁' '한·양방 의료 일원화 논쟁' '수돗물 불소화 논쟁'의 다섯가지로 설정하고, 각각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또는 논자들의 주장을 '공평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 '의약분업 논쟁' '한약 분쟁' '한·양방 의료일원화 논쟁'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할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글을 덧붙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수준과 집중도에 편차가 없지 않지만, 각각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어난 분쟁과 논쟁과정을 대체로 필자들 자신

(또는 그들이 속한 집단)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자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기여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책 한권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없겠거니와, 특히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이 책에서 찾기를 기대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상호침투하고 그에 따라 논의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필자가 이 책의 편찬 의도에 무지하기 때문일까?

이 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머리글에서 엮은 이는 "기존의 논쟁을 단순히 한목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논쟁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논점이 각론에 해당하는 글들에서는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까닭에, 필자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엮은이의 큰 그림과는 달리 다섯가지 논쟁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정도의 효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필자 역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가 일종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여러 분쟁과 논쟁도 이런 데서 비롯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개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 총체적 위기가 어떤 성격이며 또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천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대논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논쟁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분쟁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 없어

총체적 위기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만큼 소중한 기회를 뜻하는 것일 터이다. 앞에서 의료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시위나 파업이니 하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여기던 의사들마저 진정으로 보건의료 개혁에 동참할 가능성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의료는 더 이상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공급자로서 의료인 집단, 의료수요자(소비자)로서 국민(시민), 그리고 국가(정부)와 의료자본이라는 네 축에 의해 구도가 정해진다는 점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도 이제 주·객관적으로 이런 단계에 진입했음을 그동안의 논쟁과 분쟁, 그리고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 민주화의 진전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구현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날은 저절로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